

지식공유 플랫폼 비공식 회의 주요내용 정리

(2012. 6. 25)

1. 회의개요

- 일 시 : 2012. 6. 21(목), 10:30~12:30
- 장 소 : OECD 회의장
- 참석자 :
 - OECD : TAMAKI 사무차장, DAC의장, 사무국(PCD, TAD, ENV, DAF), 개발센터
 - 한 국 : 허경욱 OECD대사, KDI(차문중소장, 강우진박사), 최정훈 주재관
 - 독 일 : GIZ(Ms. KAMPMANN, Ms. WIMHOEFER)
 - 일 본 : JICA(Mr. SHOJI 파리사무소장)
 - 폴란드 : Mr. WOJCIECHOWSKI OECD대사

2. 주요 내용

- **(Brainstorming)** 금번 회의는 지식공유 플랫폼 자체의 운영계획 보다는 지식공유의 필요성, 참여자간 협력방식, 각 사무국의 개도국 지식공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
 - * 향후, 플랫폼 구성, 참여자 역할, 협력 네트워크, 지식공유 작업범위, Work Process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 필요
- **(Inclusiveness)** 지식공유 플랫폼 활동은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지역개발은행 등 다양한 지식 공유자 및 수요자간의 **Inclusive Partnership**이 요구

- **(Non T/A)** 지식공유는 단순한 프로젝트 차원의 기술협력, 연수 등과 차별화된 개발정책 차원의 협력모델이라는 인식 중요
- **(Horizontal Approach)** 각 사무국의 전문성, 지식 공유국의 개발 경험 등은 **Horizontal & Interdisciplinary Approach**로 소통적 협력이 필요
- **(Customized Approach)** 각국 개발경험은 개도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Customize**되어야 하며 **No one-size-fits-all** 원칙 준수

3. 세부 발언요지

- **(TAMAKI 사무차장)** 지식공유는 OECD개발전략을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서 OECD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중 개도국의 정책 수요가 있는 영역에 대응

* 중요 제안원칙

- 플랫폼 참여국가, 국제기구 및 조직간의 **Horizontal & Interdisciplinary Approach** 필요
- **No one-size-fits-all** 원칙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정책제안

- **(GIZ)** OECD 각 사무국의 Thematic Research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Cross Directorate Cooperation**이 중요하며 플랫폼은 다양한 지식공유자를 포괄하는 **Inclusiveness** 유지 필요

지식공유의 실행(Implementation)은 한국, 독일 등 공여국의 **Network**를 통해 지원이 가능

지식공유는 단순한 조직내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Interacting Work Stream을 가지고 있음

- **(KDI)** OECD의 지식공유 플랫폼은 기존의 WB, 기타 MDB 플랫폼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OECD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

OECD내부의 Thematic Directorate과 DAC, DEV 등 Development Cluster의 플랫폼 참여로 시너지 예상

지식공유는 일반적 개발사업과 달리 개발정책의 수립 및 정책의 실행에 이르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Monitoring과 Evaluation 과정이 필수

한국은 KSP를 통해 2004년부터 개발경험 확산(Dissemination)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Policy Consultation 사례, 100 Development Module이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 단,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의 상황에 맞게 Customize 작업 선행 필요

- **(허경욱 대사)** 지식공유는 성공적 개발경험을 활용해 개도국 개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상호협력 Framework으로서 단순히 Project 수행을 지원하는 One-way T/A와 다른 개념

지식공유 결과를 실행하는 것은 개도국의 몫이며 이는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Ownership에 해당

한국의 100 Development Module을 플랫폼에 게시하면 해당 정책수요가 있는 개도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 가능

향후, OECD 지식공유 플랫폼과 기존의 개발은행 플랫폼간의 연계협력 방안 강구

- **(DAC 의장)** 지식공유는 개도국 내에서 제안된 정책의 실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Knowledge Sharing의 Work Process 확립이 필요

지식공유의 Process는 완벽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 보다 OECD PFI(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처럼 Tool Kit을 제시하고 개도국이 자국 환경에 맞게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 적절

- **(DEV)** 개발센터는 지식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KDI, GIZ 등 실행기관의 참여로 지식공유의 Implementation 향상 기대

특정분야 개발정책 수립은 인접분야 정책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회원국, 지역개발은행 등의 참여 필요

- **(기타 사무국)** 각 사무국의 개도국 협력사례를 설명하고, 모든 지식공유 플랫폼 구성원간의 동등한 참여와 기여(Equal Footing), 특정지역 정책 개발시 OECD & Regional Group 간의 협력강화 등을 강조

지식 공유국과 개도국간의 Misconception 해소 문제, 특정 분야 정책 수립시 다양한 sub issue의 포함여부 등에서도 조율 필요